



## 농기계 사고 많아지는 5월을 대비하자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에는 농기계 사용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 “농기계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될 정도이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에서도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577건이 발생, 전체 사고 1,893건의 30.5%를 차지하고 있고, 5월에만 평균 83건이 발생, 월평균 52건에 비해 31건이나 많다.

사고의 원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사소한 조작실수, 잘못된 장비관리 등 관심만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가올 농번기를 대비하여 장비 정비와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 ■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농기계 사고 예방 수칙 ■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
-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
-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
- 경운기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 등화장치 부착상태를 확인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
- 야간도로 주행시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를 반드시 확인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둘 것
-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 · 추락 등에 주의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 · 작업 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됨 